

국제수로기구(IHO) 해도집(S-130)의 ‘동해’ 표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

박기용*

Research to Universalize the Naming of the ‘East Sea’ Notated as S-130 in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Chart Book

Ki Yong Park*

요약 : 2020년 11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세계표준 해도집에 각국의 해양 명칭을 새로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이 확정됐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표기(S-23)가 새 표준인 고유번호(S-130)로 변경됨으로써 ‘일본해’ 명칭의 단독표기가 의미 없음을 밝히고, 향후 고유번호 S-130의 상용화 과정에서 ‘동해’나 ‘일본해’ 등 기존 해양 이름들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속성 정보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여러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동해’ 명칭 표기 현황과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새 세계표준 해도집 및 국제문서의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동해, 일본해, 해양 명칭, 새 표준 해도집(S-130), 죽도와 울릉도, 애국행진곡

Abstract :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econd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held in Monaco in November 2020, the method of marking each country's ocean name as a new 'unique number' from the existing notation method was confirmed in the world standard chart book. The author reveals that the unique notation of the name 'Sea of Japan' is meaningless because the notation of the Sea of Japan (S-23) claimed by Japan has been changed to the unique number (S-130) according to the new standard. In the new naming system, as there is a lot of room that the existing marine names, such as the 'East Sea' and 'Sea of Japan', are used,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evidences that can support the justification for notation of 'East Sea' in the attribute informat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labeling of the 'East Sea' and new evidence, I addressed a way to universalize the notation of the 'East Sea' in international documents and a new world standard chart book.

Key Words : East Sea, Sea of Japan, Naming of Seas, New Standard Chart Collection (S-130), Jukdo and Ulleungdo, Patriotic March

I. 서론

동해 해역 명칭이 1929년 국제수로기구 해도집 S-23에 ‘일본해’로 기록되면서 이후 세계 해양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991년 유엔 가입 이

후 국제사회에 일본해가 잘못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자, 동해 바다의 명칭을 두고 서로 ‘동해’, ‘일본해’ 중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한일 양국 간에 분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를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과 동해·일본해 병기 제안, 해양 관련 전문 기관, 민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이사(Director, The Busan Writers' Incorporated Association, pky3310@hanmail.net)

간 단체, 재외국민들, 불어권 매체의 ‘동해’ 표기(임은진·이상균, 2016), 일본 전시기요의 ‘동해’(박기용, 2014) 등 국내외적으로 동해 표기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로 2020년 11월 16일-18일까지 모나코에서 제2차 IHO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표준 해도집에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이 2020년 12월 1일에 최종 확정되었다(외교부, 2020). 따라서 일본이 그동안 일본해로 표기 중인 S-23(국제수로기구, 1953)에서 새 표준인 S-130으로 변경되게 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일본해’ 단독 표기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고 ‘동해’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외교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S-130 상용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상용화 방식에 기존 바다 이름을 인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고유 식별번호로 해도가 바뀌어도 추가로 속성 정보에 ‘동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이에 본 연구는 S-130 해도집의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제2차 IHO 총회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N) 등의 결정 사항, ‘동해’ 표기 현황, 그리고 저자가 발굴한 국내외 ‘동해’ 표기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과 새 표준 해도집 및 국제문서의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

1. 바다 명칭의 국제표준화

1) 해양 지명 국제표준화의 시작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국가 간에 바다 명칭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으나, 1921년 국제수로기구(IHO)가 설립되면서 회원국들에 바다 표준지명을 IHO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1923년 IHO는 48개 바다 이름 표준화 회의에서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하였다. 이어 1929년 총회에서 그간 회원국 간에 합의된 해양과 바다의 명칭을 모아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S-23)”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것이 지명 표준화 계기가 되었고, 이때 동해 해역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었다. 그 후 개정된 1937년 2판, 1953년 3판까지 ‘동해’는 계속 ‘일본해’로 표기되었고 3판

의 ‘일본해(Japan Sea)’에는 남서쪽 경계, 남동쪽 경계, 동쪽 경계, 북동쪽 경계, 북쪽 경계를 수록하였으며, 그 후 1959년 UN에서 협의가 시작되어 1967년 UN 지명 표준화 총회를 처음 갖게 되었다. 이후 UN은 다양한 지명 표준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다(이기석, 2013).

2)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 노력

우리 정부는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잘못된 표기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UN 지명 전문가 그룹(UNGEGN)과 5년마다 개최되는 UN 지명 표준화 회의(UNCSSGN)에서 공식적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실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IHO를 방문하여 S-23의 개정판을 발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1997년 IHO 제15차 회의에서는 해도에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한 개정된 S-23 4판을 요청하였다. 국제수로사무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은 이에 재발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나 구성하였으나 S-23을 개정하지 못하였고 2002년 IHO 총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동해’와 ‘일본해’ 공동 병기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해 6월에 발간한 S-23 4판 “해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의 동해 해역이 설명되는 부분은 아무런 내용 없이 빈 페이지로 남겼다(이기석, 2013; 국립해양조사원, 2018).

‘동해’ 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에 대하여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500만 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애국가의 첫 구절에 나올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외교부는 일본과 달리, ‘일본해’ 대신 ‘동해’ 단독 사용을 주장하지 않고 양측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 병기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외교부, 2020). 따라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으로 세계 언론, 각국 지도제작자, 출판사 등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바, 이는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동해/일본해 병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HO 실무그룹에서 프랑스와 호주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제안하였다(심정보·정인철, 2011). 그 후 구체적인 성과로서 세계지도에서 동해 병기 비율이 2000년대 초반 2.8%에 그

쳤으나 2020년 기준 4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자).

해양수산부도 '동해' 명칭 바로 알리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기술 연수, 국제수로기구 능력배양기금 지원 등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3년 7월, 국립해양조사원과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동해' 명칭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관별로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 바다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학술적, 논리적으로 설명한 『Ocean Atlas of Korea, East Sea(동해 아틀라스)』 책자를 제공하고,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매년 전 세계를 항해하며 국제 연합훈련 수행하면서 현지 방문 국가에서 위문공연과 책자를 이용한 '동해' 명칭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국외 업무 담당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동해' 명칭의 국제사회 관심과 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데일리안, 2013년 7월 18일자).

'동해' 표기 문제는 앞서와 같이 IHO 총회 때마다 의제로 상정되었고, 2017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당사국인 남북한 및 일본 3자가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2019년 4월과 10월에 남·북한 및 일본, 미국, 영국이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고 2020년 9월 IHO는 '동해' 등 바다 이름을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자고 제안하였다.

3) IHO 해도집의 번호표기 확정

우리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제2차 IHO 총회에서 합의된 'S-23의 미래에 대한 결과 보고'가 2020년 12월 1일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역을 지명 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한다.", 둘째,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 남는다.", 셋째,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러닝 센터 구축과 '기술 결의 개정' 의제도 통과되었다(외교부, 2020). 따라서 앞으로 새 해도집에서는 일본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본해' 단독표기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4) 번호 표기 확정의 장단점

아날로그 지명 표기 방식은 일반 측면에서 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해'와 '일본해'처럼 해역에 대한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번호표기 방식은 해역을 쉽게 식별할 수 없지만 지도학적으로 간편하고 속성 정보에서 그 해역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역에 대한 국가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동해' 표기 현황

1) 해외 언론의 '동해' 표기 추세

해외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동해 명칭' 홍보 전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2월 12일자)에 의하면 우리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동해·일본해 병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해' 명칭이 언어권, 지역, 언론사의 방침, 언론사 관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동해 명칭 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한국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해외 언론 매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올롱도와 독도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고유번호 부여라는 해도집 작성 기준 변화로 인한 확대가능성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부정하여 왔다. 그로 인해 국외에서 "동해" 표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번호 부여라는 해도집 작성 기준 변화로 '일본해' 단독 표기 명분이 제거됨으로써 국내의 '동해' 표기 자료 분석을 통해 '동해'를 국제사회에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동해' 표기 확대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3. 위 내용들이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

본 연구는 새 표준 해도집에서 '동해'의 고유번호를 첫

을 때 ‘동해’ 단독이나 ‘동해·일본해’ 병기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국내의 ‘동해’ 표기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위 내용들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III. 국내외 ‘동해’ 표기 자료 분석

1. 국내 문헌 및 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

1) 국내 고문헌에 표기된 ‘동해’

국내 역사 문헌 중 동해의 명칭이 최초 등장한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시조 동명왕 기사로서 이 시기는 BC 59년에 해당한다(양보경, 2013). 동해지명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삼국사기』 등 고문헌과 광개토태왕 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심정보, 2013).

2) 국내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양보경(2013)은 조선전도 속의 동해지명 중 ‘동해’ 표기 여러 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 시대의 고지도 중에서 ‘동해’를 적극적으로 표기한 지도는 규장각 소장본 《여지도》인데, 그중 1789~179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국총도 我國總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일본·유구국도>는 조선전도로서 팔도의 각 지도에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편 동해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군현지도인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그중 경상도 각 군현의 지도를 모은 도별군현지도집인《영남지도》(규장각 소장)이다. 《영남지도》에 포함된 <경주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에는 동해창(東海倉)과 동쪽 바다에 ‘동해’가 표시되어 있고, 이 지도첩 중의 <울산> 지도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기록하였다. 이 지도들은 조선 후기에 국가 군무와 국정을 총괄했던 비변사에서 편찬한 ‘비변사지도’로서, 1747년(영조 23년)~1750년(영조 2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변사에서 제작하여 소장했던 대표적인 관찬지도이다.

또 다른 지도책인 《광여도》(규장각 소장)의 경상도 울산부지도에도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읍지 속의 ‘동해’ 지명 지도는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후인 1872년에 정부가 전국 각 군현에 읍지와 지도를 만들

어 바치도록 한 것으로, 그중 460여 장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연구원에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경상도 지도 중의 <울산목장지도>에도 ‘동해’ 표기가 나타난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경상도 경주와 울산 앞바다를 동해라고 집중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문헌 및 지도에 나타난 ‘동해’

1) 일본 고문헌에 표기된 ‘동해’

(1) “죽도와 울릉도”란 책자의 ‘동해’ 표기

일본의 역사 교사가 지은『죽도와 울릉도』(오키하라 헤키운, 1907)란 책자에서 저자는 ‘동해’ 표기 관련된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신문 기사에 소개되었다(조선법, 2018년 5월 29일자). 요약하면,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명치 40년 3월 말에 독도를 죽도로 칭하고 신 영토계획으로 30여 명이 죽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단원 중 오키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역사 교사는 조사 결과물을 써서 시마네현에 내고 1907년 5월에 조사내용을 『죽도와 울릉도』라는 책자로 출간했다(그림 1).

이 책자의 제1장 지리의 위치와 지세에, “울릉도는 한국 강원도 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북위 37도 29분, 동경 130도 53분에 위치하고 강원도의 연안 거리 약 80리, 서북 140리에 있다. 지세로는 본도는 강원도 금강산의 한 지맥, ‘동해’에 들어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봉우리와 골이 이어져 있다. 산세는 험하여 평지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울릉도가 ‘동해’에 속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동해’ 표기는 우리의 동해를 당시 일본 사람도 동해라 불렀고 일본 정부도 ‘동해’ 명칭을 인정해 왔다는 것을 이 사료가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2) 일본인이 지은 노래의 ‘동해’ 표기

일제강점기 때 퇴계의 학문을 숭상하는 일본인이 지어 부른 ‘이퇴계’ 제목의 노래 가사에 ‘동해’가 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노래는 1934년 9월 18일 발간된 ‘일본인의 교육 정신과 이퇴계’ 책에 수록돼 있으며, 4절에 ‘동해에 최고인 그의 학풍과 도산서원, 없어지지 않은 학풍(공적)은 믿어 사모하니 그 이름 찬양하리’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뉴시스, 2012년 8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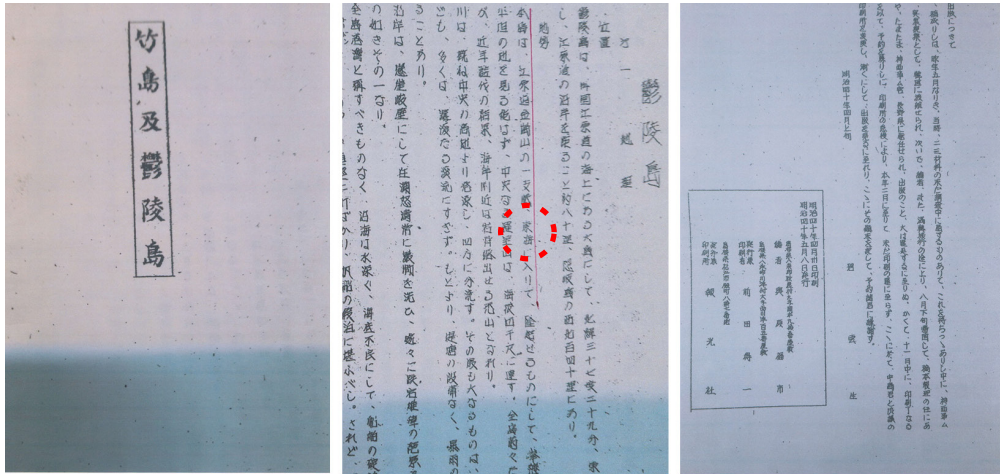


그림 1. 울릉도는 '동해'에 속한다는 "죽도와 울릉도"

* 출처 : 오키하라 헤키운, 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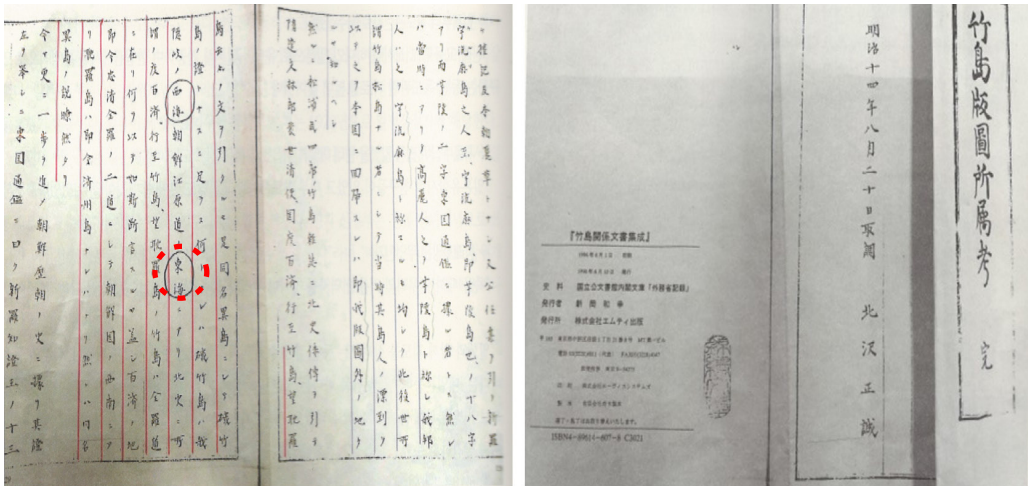


그림 2. '죽도'가 '동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다계시마 판도 소속고(완)

* 출처 : 김문길·강영철, 2020

(3) “다계시마 판도 소속고(완)” 책자의 ‘동해’ 표기
일본 외무성 보존문서로서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1904년 8월 20일 출간한 “다계시마 판도 소속고(완)(竹島 版圖 所屬考(完))”(그림 2)에는 각 섬의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원하고 러일전쟁을 앞두고 나카이 요사부리가 독도를 죽도라 칭하고 편입하려 하자, 향토사를 연구한 기타자와 마사나리 씨가 독도(죽도)는 조선에서 보면 동해에 있고 일본에서 보면 서해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문길·강영철, 2020).

(4)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인 목사 규탄詩의 ‘동해’ 표기

제암리 학살사건은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 직후 제암리 일대의 만세운동에 대하여 일본군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당시 수원군) 제암리 마을 주민 수십 명을 교회에 몰아넣은 뒤 총을 쏘고 불을 지른 보복성 만행으로, 김문길이 해석하여 제공한 일본 복음신보의 위 만행을 규탄한 사이토 이사무의 시, ‘어느 살육 사건’에 우리나라를 동해 건너 군자의 나라라고 하여 분명히 ‘동해’로 기록되어 있다(국민일보, 2010년 3월 1일자).

어느 살육 사건(사이트 이사무(齋藤勇))

아르메니아 만행 아닌가/ 300년 전 피에도엔도 살육 아닌가/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벌어진 참사/ 영원의 평화를 기도하는 회중에 생긴 일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일본)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소위 지식들이 힘줘 말할 때다

-중략-

헤롯왕이 저지른 살육보다 더 크지 않은가/ 피에도엔도나 아르메니아 참사보다 덜하다고 하겠는가/ 시마바라(島原)나 나가사키(長崎)에서 있던 일이랄까/ 군자국에 그러한 예가 드물다고 누가 말했나/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또 있을 텐가/ 저주받지 않을까/ 동해 건너 군자의 나라여

2) 일본이 제작한 한반도 고지도의 ‘동해’

일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 제작한 한반도 지도인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그림 3)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표시하였으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는 한 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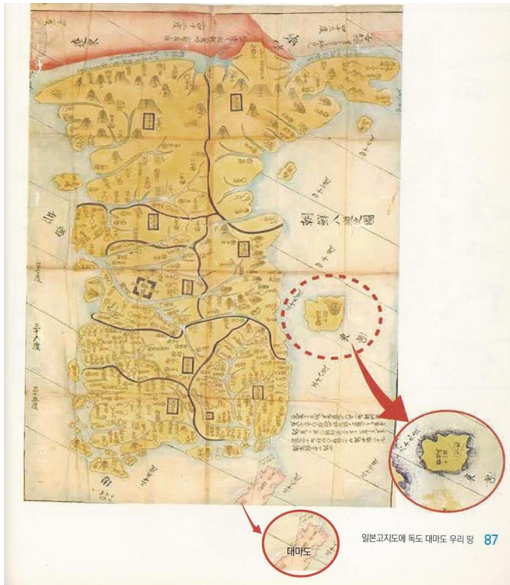


그림 3.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속한다는 일본인 제작 조선팔도지도

* 출처 : 김문길·강영철, 2020

울릉도와 독도 옆에 표시된 東 자를 통해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해를 한글로 표시했으며, ‘東’자 옆에 표기된 ‘몽’ 자는 일본인 제작자에 의한 한글 표기 오류로 해석되고 있다 (김문길·강영철, 2020).

3) 일본 애국행진곡의 ‘동해’

(1) 일본 애국행진곡의 ‘동해’ 가사 발견 및 반론 일제강점기 때 ‘박시춘 기타 작곡집(박시춘, 1939)’에 실린 ‘애국행진곡’(그림 4)이라는 전시가요에서 ‘동해’가 표기된 가사가 2012년 5월 23일 공개되었다(박기용, 2014).

그런데, 윤상인이 연합뉴스(2012년 5월 24일자) 인터넷판에 “일본열도에서 볼 때 그들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우리의 동해는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해 뜨는 동쪽, 즉 태평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특히, 논란이 되는 가사는 ‘보라 동해(東海)의 하늘이 밝아와 옥일(旭日:떠오른 해, 일본제국주의를 상징)이 높게 빛나면...’의 노래 첫 구절이다.

이에 저자는 위키피디아 프리 백과사전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확보한 일본 내각정보부 편집, 소화(昭和) 12년에 발간한 주보(週報) 제56호에서 애국행진곡의 작사가 dots토리현 사카이초에 거주하던 모리카와 유키오(森川行雄)란 사실을 알아냈고, 안홍배(2012)로부터 “일본열도의 서쪽 해안에서 해가 바다 위로 떠 오르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일출이 장관이어서 최근에는 관광 상품화되어 있을 정도인 dots토리현 지역(그림 5)으로, 이 가사에 표현된 동해가 대한민국의 ‘동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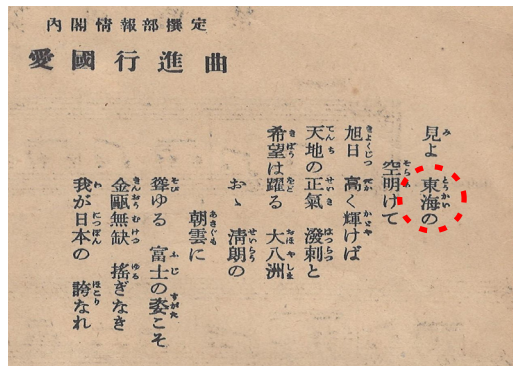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애국 행진곡

* 출처 : 박시춘, 1939

분명한 이유는 작사가가 매일 보던 일출 광경을 보고 작사한 것이라 가요의 가사 첫머리에 동해가 들어간 것"이라며, "일본에서 뜨는 해는 태평양에서 뜨기 때문에 전시동원가요에 있는 동해는 태평양을 잘못 쓴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지의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확인서를 받았다.

김문길(2012)으로부터는 일본 돗토리현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동해에서 해 뜨는 것을 보았으며, 주민들로부터 "동해에서 해가 뜨며 지금도 우리가 보는 동해(독도 쪽)에 해맞이하러 간다."는 확인까지 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최홍배(2012)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전시동원가요에 '동해'라는 명칭이 표시된 것은 적어도 1937년까지는 한국의 '동해'에 '일본해'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쓰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따라서, 애국행진곡의 작사자 모리카와 유키오가 살았던 돗토리현에서 해가 뜨는 곳은 우리나라의 '동해'가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교수들의 도움으로 연합뉴스(2012년 7월 21일자) 인터넷판에 재반론이 실렸다.

앞서 "가사 속 '동해'는 '태평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던 윤상인은 "노랫말에는 '동해' 뿐만 아니라, 맑고 청량한 아침 구름 속에 우뚝 솟은 '후지산'도 나온다." "안 교수 등의 주장대로라면 작사가가 동해도 보고 후지산도 봐야 하지만, 돗토리현에서는 일본 열도 동쪽 끝에 위치한 후지산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이라는 또 다른 주장의 윤 교수 글도 함께 실렸다.

이에 저자는 (1) 애국행진곡의 대가인 오무라 고우치 <<철저 검증 일본의 군가-전쟁 시대의 음악>>이란 저서

에서 제시된 진술(Omura, 2011), (2) 우리나라 문헌 및 지도 등에 의한 논거, (3) 위의 논거에 의한 애국행진곡의 해석, (4) 일본 지도 및 문헌 등에 의한 논거, (5) 일본 지리학자 야지(谷治)의 논문(이현옥, 2013) (6) 애국행진곡(1937년) 가사를 공모한 2년 뒤인 1939년에 또다시 공모를 통해 태평양행진곡이라는 전시가요를 내놓은 사실 등과 같은 새로운 증거들을 더 보강하였고, 애국행진곡의 동해가 우리의 동해라는 사실을 밝히는 논문도 게재된 바 있다(박기용, 2014).

3. 세계지도 속의 '동해'

1) 서양 고지도의 '동해'

(1)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

이상태(2004)에 따르면, 서양에서도 동해가 표시된 지도가 많은데, 동해가 고지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54년에 'N.상송 Sanson'이 제작한 「Tartarie 지도」에서 'The Oriental Sea'로 표기된 것으로, 이는 1602년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가 그린 「곤여만국전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보다 50년 후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태는 「곤여만국전도」는 일본이 일본해 명칭의 정당화로 제일 먼저 내세우는 지도지만, 마테오리치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 쪽 근해를 일본해로, 우리나라 쪽 바다에는 한국에 대한 설명문을 실어 공간 부족으로 그렇게 표시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던 G. 알레니 Aleni가 1623년에 제작한 「만국전도」에는 동해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태는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146종,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127종, 서울역사박물관의 82종, 개인 소장 52종 등, 도합 407종의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USC대학 소장 고지도 146종 중에 동해라고 표시된 지도가 134종,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는 12종이며, 프랑스국립도서관에는 동해와 관련이 있을 직한 고지도 500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바, 동해나 일본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도는 127종으로 이 중에 동해라고 표시된 지도가 109종, 일본해로 표시된 지도는 18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동해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지도가 40종, 일본해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2종이며, 이 외에 'China Sea' 1종, 'Mer



그림 5. 동해에서 해 뜨는 돗토리현

* 출처 : 조선일보(2016년 7월 11일자)



그림 6. 동해(동양해)+일본해 세계지도(니콜라 비텐, 1730)

* 출처 : 심정보·정인철, 2011

de Tartarie' 1종이라고 한다. 이 밖에 개인 소장 고지도에는 동해 표시가 15종, 일본해 표시는 37종으로 전체 407종의 지도 중 동해 표시가 298종으로 73.2%, 일본해 표시는 109종으로 26.8%이라고 밝혔다(이상태, 2004).

(2) 서양 고지도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동양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니콜라 비텐(Nicolaas or Nicolaes Witsen, 1641~1717)의 지도로서, 그의 사후인 1730년에 출간된 세계지도(그림 6) 등을 들 수 있다(심정보·정인철, 2011).



그림 7. 한국해와 동해가 표기된 18세기 지구본

* 출처 : 매일경제(2010년 3월 2일자)

2) 한국해·동해 표기된 18세기 지구본

영국인 존 세넥스와 벤저민 마틴이 1757년 제작한 것으로,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University of Salamanca)의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구본(그림 7)에는 현재 동해 위치에 'MARE COREA(한국해)'와 'MARE ORIENTALE(동해)'이 병기되어 있다(매일경제, 2010년 3월 2일자).

3) 서양 현대 지도의 '동해'

(1) '동해'와 '일본해' 병기 지도

2016년 8월에 출간한 "East Sea in world maps"에 세계 지도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 병기 지도를 실었다(추성재, 2016). 책자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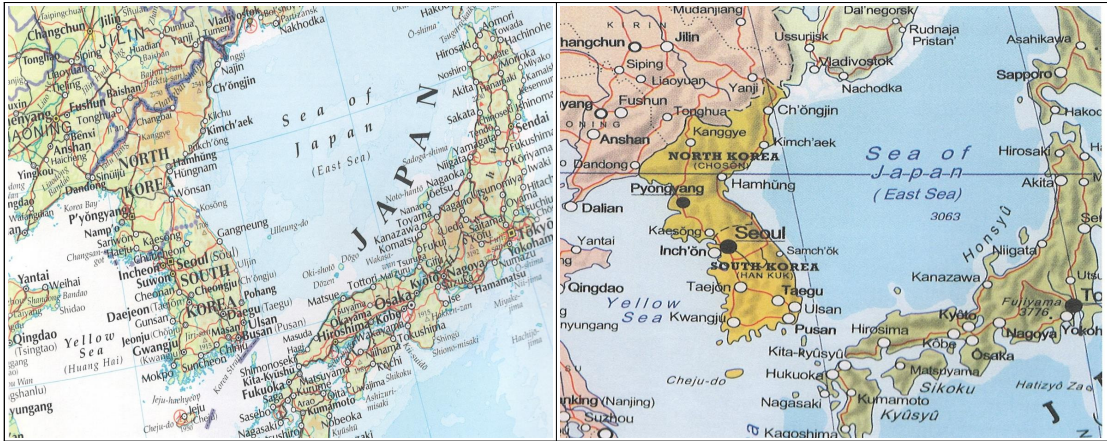
4) 기타 '동해' 표기 지도

(1) 항공기 기내잡지 안내지의 '동해' 단독표기

Swiss의 항공사인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의 기내잡지(2002년 9월) 안내 지도(그림 9)에 동해가 East Sea로 단독 표기되어 있다(이기석,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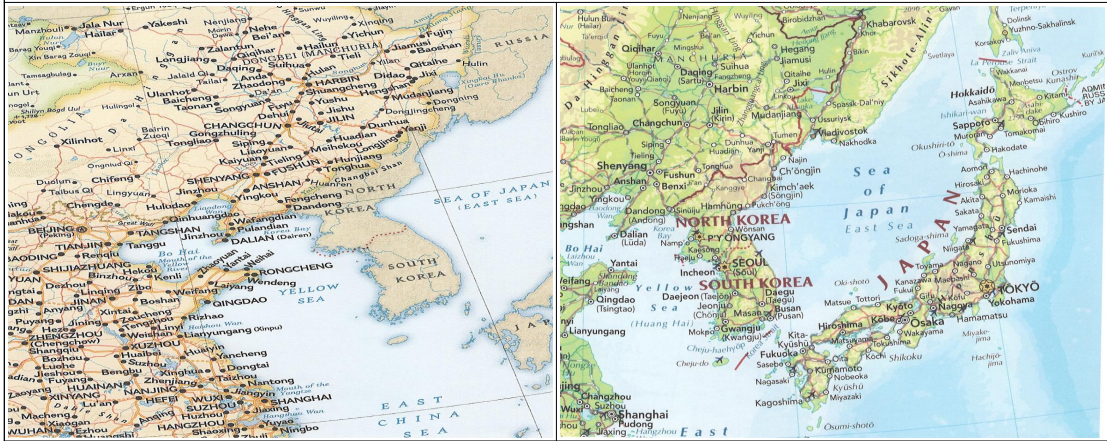
(2) 아르헨티나 매체 '동해' 등 단독표기

아르헨티나 매체 '바에(BAE)'는 2019년 12월 2일에 동해를 '일본해(Mar del Este)'로 단독 표기했다가 한국문화원의 수정 요청으로 인터넷판을 통해 '동해(Mar del Este)'로 즉시 바꾸었고, 2019년 10월에는 현지 월간 '위켄드'가 부산을 소개한 기사의 지도에서 한반도 남동부 앞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대한해협(Estrecho de Core)'(그림 10)으로 바로 잡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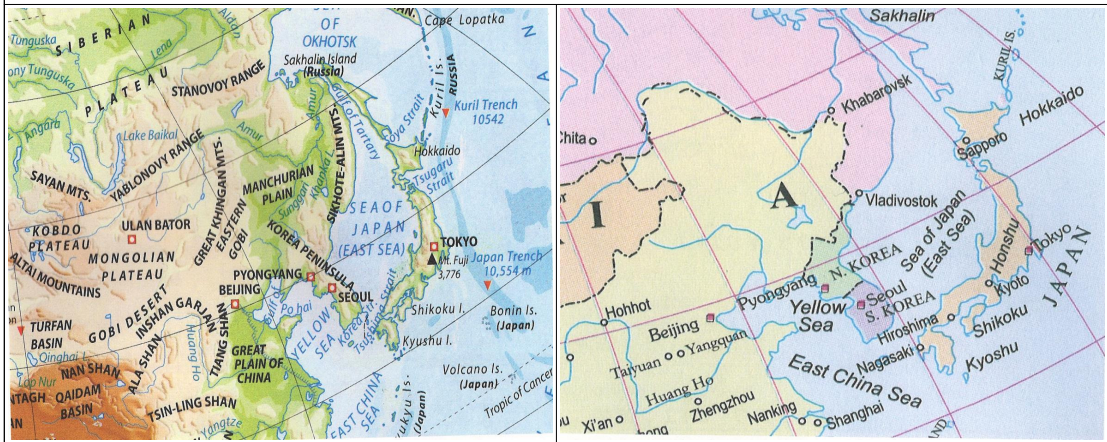
유럽 편

* 좌 : Times Books, Univel Atlas of the World, 2014, 우 : Michelin The World, 2014



아메리카 편

* 좌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Global Atlas, 2014, 우 : Harper Collins, Collins World Atlas, 2014



아시아와 그 외 편

* 좌 : Allied Publishers, Allied's 3D School Atlas, 2015, 우 : f. S. Chand Publishing S. Chand Atlas : the World Explorer, 2015

그림 8. 서양 현대 지도의 '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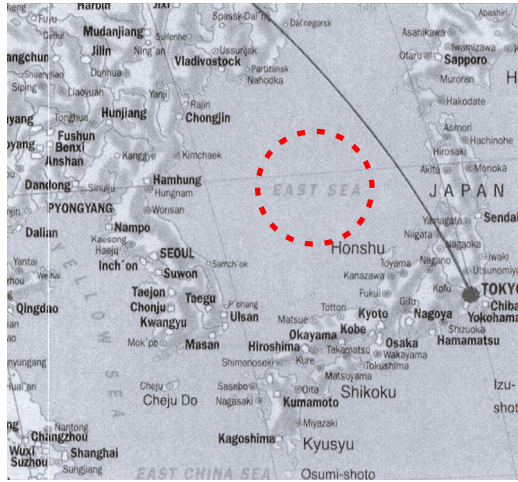


그림 9. '동해'로 표기된 스위스 IAL 기내 잡지 안내 지도

* 출처 : 이기석, 2005



그림 10. '일본해'가 '대한해협'으로 바뀐 아르헨티나 매체 위켄드 지도

* 출처 : 연합뉴스(2019년 12월 12일자)



그림 11. '동해'로 표기된 '더스택닷컴' 지도

* 출처 : 연합뉴스(2017년 3월 2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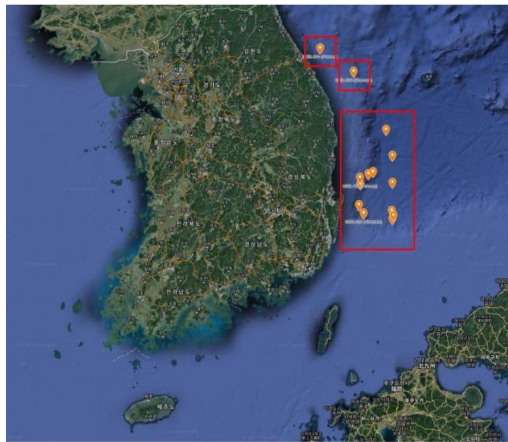


그림 12. 동해 울릉분지 IODP 시추장

* 출처 : 헤럴드경제(2022년 2월 24일자)

(3) 영국 매체 '일본해' 표기 '동해'로 변경

영국 더스택닷컴(Thestack.com)은 전 세계 뉴스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왔다. 이를 확인한 한 여고생의 노력으로, 2017년 3월 17일, 우리 기사가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해' 표기 사진을 '동해'로 수정했다는 (그림 11) 답장을 보내왔다고 2017년 3월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23일자).

(4) 해양 관련 전문 연구기관들에 의한 '동해' 표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해양시추프로그램(IODP) 사무국을 통해 '쓰시마 분지' 라고도 불리는 '동해 울릉분지 과학시추(그림 12)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해저 물리탐사를 위한 과학시추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헤럴드경제(2022년 2월 24일자)가 밝혔다. 따라서 울릉분지 IODP 과학시추에 참여

하는 전 세계 IODP 승선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보고서에 '울릉분지'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울릉분지'의 국제적·공식적인 지명 확립은 향후 '일본해(Japan sea)'가 아닌 '동해(East Sea)' 표기 증가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해럴드경제, 2022년 2월 24일자).

4. 위 '동해' 표기 자료들의 학술적, 독창적 가치 및 파급효과

1) 일본 애국행진곡 가사의 '동해' 표기

저자가 일제 전시가요인 '애국행진곡' 가사에 '동해' 명칭이 표기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2012년 5월 23일 자 부산일보가 "일제가 목청껏 불렀던 전시가요에 동해"라는 제목으로 이 곡에서 동해는 일본의 동쪽 바다라는 뜻의 보통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고유 바다의 명칭 '동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전시가요인 '태평양행진곡'에는 일본의 동쪽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는 우리의 '동해'라고 대서특필하였고, 연합뉴스, JTBC,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어서 같은 날 일본 매체도 「日本海 呼稱 일제의 전시가요곡, 「愛國行進曲」 가사에 「東海」表記」란 제목으로 보도하였다(그림 13).

그 후 2016년 7월 11일자 조선닷컴은 칼럼으로 "일제 전시동원 '애국행진곡' 가사의 '동해(東海)'는 우리의 동해일까, 일본의 태평양일까?"라는 제목으로 재차 보도하였다.

【日本海呼稱】「見よ東海の空あけて」～日帝の戦時歌謡曲、「愛國行進曲」歌詞に「東海」表記★2[05/23]
<http://awabi.2ch.net/test/read.cgi/news4plus/1337861234/>

1 : 蚯蚓の ☆ : 2012/05/24(木) 21:07:14.95 ID:???

日帝強制支配期当時、日本政府が軍人の閲兵や国民の國家儀式の時、歌った戦時動員歌謡に「東海」という名称が明記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正しい生活運動釜山鎮區協議會會長をしていた隨筆家/バク・キョン(67)氏は祖先が残した日帝強制占領期間の蓄音機板と作曲集などを整理していると、「朴是春(バクシチュン)その他作曲集」の「愛國行進曲」という戦時歌謡で「東海」が表記された歌詞を発見したと23日明らかにした。

그림 13. 일본 한 매체에 실린 "[日本海 呼稱] 일제의 전시가요곡, 「愛國行進曲」 가사에 「東海」表記」 기사

* 출처 : 출처 미상. 2012년 5월 23일 인터넷 한 매체에 다음의 주소로 실렸으나 현재는 연결되지 않음. 그림 13은 당시 기사의 복사본임.
<http://awabi.2ch.net/test/read.cgi/news4plus/1337861234/>

2) “죽도와 울릉도”란 책자 등의 ‘동해’ 표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존재하는 동해 바다를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임의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릉도가 ‘동해’에 속한다는 자료 등 동해가 우리의 ‘동해’라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것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귀중한 자료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분석 자료들은 한국지리, 영토지리 측면에서 학술적, 독창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동해’ 표기 확산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5.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

1) ‘동해’ 표기 지도 및 문헌 자료의 체계화

해도집의 바다 명칭이 고유 식별번호로 바뀌어도 바다 이름이 지도에서 소멸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표기 방법이 각국 정부나 지도 제작업체 등에 달려있어 정부와 민간외교를 통한 유대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위에서 분석한 ‘동해’ 표기 관련 증거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동해’ 표기 지도 및 문헌 등을 계속 발굴하여, 증거자료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 표준 해도집의 속성 정보에서 ‘동해’ 표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관심사로 정부와 학계,

この作曲集は日帝の朝鮮人強制徴兵と戦時動員体制が本格化した1935年(昭和10年)に前後した時期に発行されたもので作曲家、朴是春(1913~1996)の代表曲を集めた本だ。

作曲集一番の曲「愛國行進曲」で「見よ東海の空あけて旭日(昇る日、日本帝國主義を象徴)高く輝けば...」の一節で東海と表記されたものが出てくる。この曲の作曲者は朴是春だが、作詞家は「内務部情報課選定」と明示されている。

ここで東海は日本の東側の海という意味の普通名詞ではなく、私たちが呼ぶ固有の海の名詞「東海」を指すに似て、別の語

민간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으로 '동해 표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지도 등에서의 '동해' 병기울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는 IHO 해도집의 바다 명칭 대신 번호표기 확정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동해 홍보전이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2)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 표기가 언어권, 지역, 언론사의 방침, 언론사 관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여러 자료를 근거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면 '동해' 표기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항해사들은 해도를 항상 해도실에 비치해 두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필요한 해도를 선별하여 항로를 정한 후 항해한다. 그런데 새 표준 해도집(S-130)의 '동해' 표기 상용화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도 '동해' 표기 확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3) 전담 기구 설치 및 국제 홍보 강화

첫째, 이러닝 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이러닝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결과 이번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들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만든 가상 교육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관련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러닝 센터를 설립하고 우리가 선도하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2020년 제2차 IHO 총회에서 승인된 기술결의에는 S-100 관련 표준 개발, 데이터 변환, 보안, 배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IHO 결의안을 존중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해' 표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담하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편 차후 IHO 결의나 한일 당사자, 다자간 문제가 발생 시를 대비해 전담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

넷째, '동해' 표기 상용화를 위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IHO 의장단에 진출하여 새로운 해도집(S-130)과 속성 정보 지침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다섯째, '동해' 표기 확산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면서 국제사회에 홍보를 강화한다.

IV. 결론

'동해' 표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여러 유형으로 세분하여 고찰하고 검토한 결과, IHO 2차 총회에서 해도집의 바다 명칭이 고유 식별번호(S-130)로 바뀌게 됨으로써 동해 해역의 '일본해' 단독표기가 사라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러닝 센터 구축'과 '기술 결의 개정' 의제도 통과됨으로써 상용화 과정에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 표준 해도집 발간을 앞두고 위에서 분석한 '동해' 표기 관련 증거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동해' 표기 지도 및 문헌 등을 계속 발굴하여야겠다. 또한, 속성 정보에서 '동해' 표기울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관심사로 정부와 학계, 민간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으로 '동해' 표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지도 등에서의 '동해' 병기울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한편 박경(2020)은 일본해 일부로 대한해협이 포함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한 가설은 러·일 전쟁 후 일본군부가 대한해협의 승리를 일본해 해전의 승리로 선전한 것에 기인하므로, 추후 근대 일본 사료와 IHO의 문서들에 대한 사료 검토를 통해 가설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에서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 새 표준 해도집 및 국제문서의 '동해' 표기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국립해양조사원, 2018, 「IHO 해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 (S-23) 제4판 최종안 영한대조본」, 209-210.
국제수리기구, 1953,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3판 영한대조본」, 52-70.
김문길, 2012, “‘동해’에서 해 뜨는 돛토리현” 한국수로학회지, 3(2), 100-103.
김문길·강영철, 2020, 「독도는 한국 땅」, 서울: 대양미디어.
박경, 2020, “일본 외무성 조사 자료를 통한 동해지명의 역사적 변화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20(1), 1-12.

